

MARITIME 2050 Navigating the future

(2024/10/7, 해양금융센터)

1 MARITIME 2050 개요

- 주요 목표: 영국 해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학이 협력하여 세계 선도 해양중심지로서의 비전을 나타냄
 - 이를 통해 영국이 선도적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해사 산업 전략을 구현하고자 함
 - 현재 영국의 경쟁우위 분야 및 해사 산업 변화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 방향을 도출함
 - 주요 권고 사항으로 해양전문서비스의 강점 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 유지와 친환경 해운에 대한 기술 혁신 촉진·무배출 해운 달성을 제시함
 - Maritime 2050 핵심 전략적 포부(Strategic Ambitions)

	구분	내용
전략1	전문 서비스	해양 전문 서비스(법률·금융·보험·관리)에서의 강점 극대화
전략2	청정 성장	청정 해양 성장에 대한 선도적 조치를 통한 혜택 수용
전략3	혁신	해양 혁신의 명성 강화 및 해양기술의 이점 극대화
전략4	안전	해양 안전, 보안 기준, 전문성의 글로벌 리더 지위 유지
전략5	인력	해양 인력 증대 및 다양성 변형추구를 통한 교육 명성 강화
전략6	자유화 무역	해양분야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화 무역 체제 촉진
전략7	투자	해양비즈니스 글로벌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상업적 투자 지원
전략8	리더십	국제 기구에서의 선도적 국가 역할 강화
전략9	클러스터	산학계 파트너십을 통한 해양 클러스터 제공 홍보
전략10	홍보	영국 해양 제안의 세계적 홍보와 글로벌 해양행사 중심지 지위유지

2 정책 배경

□ 연구 배경: 영국 당국은 해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국제 해운 규제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글로벌 리더십 지위 유지를 위해 지속 가능한 해양 전략을 수립함

- 해사 산업 성장 연구 2015 (Maritime Growth Study)에서 국가 차원의 해사 전략 개발 필요성을 제시함

- ① **안정적 환경:** 해사 부문은 장기적인 의사결정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필요하기에 비즈니스 성장에 유리한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② **장기적 도전:**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임
- ③ **해사 공급망:** COVID-19 팬데믹 이후 해사 공급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해사 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함
- ④ **국가 경제 기여:** 해양 부문은 영국 경제에 연간 461억 파운드를 기여하며, 11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함 또한 다른 경제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⑤ **글로벌 리더십:** IMO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영국이 글로벌 해양 규제와 입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함

□ 전략 개발 과정: Maritime 2050은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참여의식 표명과 해운 관련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킨 전략 수립 과정을 거침

- 학계, 산업 리더, 해양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자 및 홍보 기관들로 독립 패널인 Maritime 2050 Expert Panel을 구성하여 전략 개발 전 과정에서 자문 제공

- 시기별 실행 전략 제시: 단기(5년 이내), 중기(5~15년) 및 장기(15년 이상)에 걸쳐 설정
- 7가지 주요 전략 분야를 나누어 분야별 권고 사항 및 전략을 제시함

3 영국 해사산업 현황 및 핵심 트렌드

□ 영국 해사산업 현황: 글로벌 지위 측면

- 영국은 과거의 글로벌 우위를 상실했으나 여전히 중요한 해양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해양 산업은 영국 내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영국 수출입의 약 95%가 해상으로 운송되며, 해양 비즈니스 서비스는 20억 파운드를 기여하며, 전체 해양 부문을 포함할 경우 50억 파운드로 증가함*
 - * 런던시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세계 해양 보험 프리미엄과 선박 중개 거래의 가장 큰 부분이 영국에서 발생하며 각각 35%와 26%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가격 및 지리점 이점을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올바른 정책적 비전이 필요한 상황임

□ 영국 해사산업 현황: 환경·기술·교육 측면

- IMO 환경 규제 합의 도출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해양부분의 자율선박 운행 기술 개발 및 해양산업 인력 개발에 힘쓰고 있음
 - (환경) 2050년까지 해양 부문에서 온실가스(GHG)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탄소 중립 연료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함
 - (기술) 영국 기업들은 SEA-KIT 무인 선박과 같은 초기 단계의 자율 선박을 생산하고 있음
 - (교육) 해사 산업 내 인력의 교육*(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기관)과 훈련이 성공의 기본 요소임을 인식하고 현재 해사산업 내 여성의 활동 비율이 낮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적 필요성을 제시함
 - * 영국은 해당분야의 리딩국가이며, 안전, 규제 및 선원 복지의 산업 기준을 촉진하는 기준점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고적인 리더십의 원천으로 기능함

□ 해사 산업 7가지 핵심 트렌드

7가지 핵심 트렌드	
1	해상 무역의 장기적 성장
2	세계 인구 변화
3	인구 고령화
4	세계 경제의 동향 변화
5	정치적 권력 기반의 변화
6	새로운 혁신 기술의 출현
7	기후 변화와 중대한 기후 사건

- (해상 무역의 장기적 성장)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양과 관련 해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큰 변화의 조짐은 없음
- (세계 인구 변화) 해양 산업은 세계 인구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음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되며, 무역 패턴과 수출입 수요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인구 고령화) 고령화 인구는 일부 수요 감소에 영향이 있으며 영국 인력에 있어 기술 및 물류 공급망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세계 경제의 동향 변화) 세계 경제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신흥 시장의 등장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정치적 권력 기반의 변화) 정치적 권력 기반의 변화가 있을 경우, IMO 및 기타 국제 포럼에서의 규칙 기반 논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새로운 혁신 기술의 출현)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및 디지털화와 같은 분야에서 해양 산업에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기후 변화와 중대한 기후 사건) 기후 변화와 중대한 기후 사건은 해양 산업의 회복력과 무역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해양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임

3 7가지 주요 전략 분야

□ 개요: 7가지 주요 전략분야(①영국의 경쟁 우위 ②기술 ③사람들(인력) ④환경 ⑤무역 ⑥인프라 ⑦보안 및 회복력)를 탐구하고 분야별 권고사항을 제시함

□ 영국의 경쟁우위 분야

- 재정적 경쟁력: 영국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며, 런던시는 법률, 중재, 금융 서비스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
 - 해사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해사 커뮤니티에 재정적으로 매력적인 장소로 남기 위한 조치를 탐구하고 있음
- 영국의 해양 클러스터: 런던과 영국 전역의 해양 클러스터는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인 매력도를 높임
 - 산·학계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이고 동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며,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
- 사고 리더십 (thought leadership): 영국은 IMO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의 협상을 통해 사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선도적 연구 결과를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환하고 있음
 - 지식 전이를 극대화하는데 해양 민·관·학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IMO의 영국 유치가 글로벌 사고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
- 강력한 파트너십: Maritime UK의 설립을 통해 해양 부문을 대표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와 해양 부문 간의 협력을 경쟁 우위의 핵심으로 여김
 - 정부 각 당의 장관과 의원들은 해양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공동 성공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음
- 규제에 대한 현대적 법체계 필요성: Maritime 205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내 법적 체계가 필요함
 - 영국 선박 등록(UKSR)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품질과 안전에서 현대적 기대에 부응

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안전 기준의 중요성: 안전한 해양 부문은 미래에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해양 안전 기준이 낮아 치명적인 사고율이 높음
 - Maritime 2050 이행 중에 필요한 안전 기준 개선 조치를 탐구함
- 영국 국기의 브랜드화: UKSR이 품질 브랜드로서 글로벌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계 해운의 최전선에서의 역량과 유연성을 강조함
 - 혁신과 고객 경험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영국의 해양 서비스가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

□ 기술 분야

- 미래 기술 변화: 해사 산업 부문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켜 해사 기술 향상을 촉진하고 더 나은 결정 기회를 제공함
 -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화 및 고급 통신이 연결성,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즈니스 위험도 증가시킴
- 기술 리딩국가 목표: 스마트 해운 기술의 설계, 제조 및 사용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자 함
 - 자율 선박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산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데 자금을 지원함
- 스마트 항구: 2050년까지 통합 공급망의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새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및 자동화 프로세스 활용을 통해 상품의 효율적 처리를 극대화할 것임
 - 소형 항구 개발은 산업 주도로 이루어지며, 정부의 지원을 받음. 기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공동 경쟁이 이루어지며, 2030년까지 영국의 항구에서 교차 부문 혁신 허브를 설립할 것임
- 디지털화: 종이 기반의 프로세스를 대체하여 운영 및 비용 효율성을 높임
 - (신기술 도입)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발굴하고,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등의 선도적으로 노력함

- 통신, 항법 및 탐사 수요 증가: 원격 조정 선박 개발 및 극지방과 같은 외딴 지역의 위성 통신 범위 확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양 및 우주 제조 능력을 연결하여 교차 부문의 잠재력을 활용함

□ 사람들(인력) 분야

- 인력 교육 방향: 해양 인력 (Workforce) 해양 산업은 다양성을 갖춘 인력을 지향하며, 좋은 해양 복지를 통해 글로벌 기준을 설정할 것임
 - (기술 교육) 젊은 인재들에게 해양 경력을 장려하고, 해양 대학 및 전문 교육 기관에서 고품질의 기술 교육을 제공함
- 다양성 (Diversity) 확보: 다양성이 제한된 인재풀은 산업의 경제적 잠재력을 제한함
 - (성별 균형) "Women in Maritime Taskforce"와 같은 공동 노력이 성별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함
- 해양 기술 및 촉진 (Maritime Skills and Promotion): STEM 과목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직무가 더 전문화되고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함
 -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 영국의 기존 이점을 활용하고, 새로운 요구에 맞춘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기술 활용: 인력 개발에 활용되는 기술은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 (가상 현실 활용) 해양 근무 환경에서 더 나은 인터넷 연결은 평생 학습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재교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정신 건강 관리: 해양 근로자들은 정신 건강 문제를 많이 겪으며, 이는 고립된 작업 환경과 압박감에서 비롯됨
 - (복지 기준 설정) 영국은 해양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며, 산업과 협력하여 복지 기준을 설정할 것임

□ 환경 분야

- 기후 변화 대응: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물품과 사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이 필요함. 영국은 해양 기술과 금융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환경 목표를 달성하고,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지원함
 - (해운 넷제로) 2050년까지 해운 넷제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경쟁국보다 빠르게 경제적 이익을 얻고, 관련 역할 모델을 확립할 것임
- 제로 배출 해운 (Towards Zero Emission Shipping): 해운업의 온실가스(GHG) 배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해 배출 통제 구역(ECA) 및 글로벌 유황 한도와 같은 규제가 시행됨
 - (청정 기술 개발) 개발을 위한 산업, 정부 및 공급망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규제가 적절하게 역할하며 해운 기업이 연구 및 투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환경적 영향 최소화 (Minimising Wider Environmental Impacts): 30년 후 영국 해양 부문은 미미한 환경적 영향을 가져오며, 설계에서 운영까지 전체 생애 주기에 환경 최소화가 통합됨
 - (기술 적용)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환경 기준 준수 모니터링을 통해 enforcement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해양 산업의 표준을 높임
- 기후 변화 적응: 기후 변화로 인한 항구 홍수, 극단적 기상 이벤트 및 해안 침식의 증가로 영국 물류 흐름에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함
 - (협력의 중요성) 산업과 환경청, 기상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해양 무역로 논의에 환경을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함
- 국제 리더십: 영국은 국제 해양 환경 외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
 - (경제적 이익과 환경 규제) 파란 경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영국은 환경 규제를 재조명하고, 국제 해양 부문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

□ 무역 분야

- 무역의 중요성: 무역은 영국 해사 산업의 기초로, 약 10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함
 - (경제 기여) 해사 산업은 400억 파운드를 영국 GDP에 기여하며, 글로벌 무역 목표를 가능하게 함
- 글로벌 거래 체제 (Global Trading Framework): 영국은 자유화된 글로벌 거래 체제를 추구하여 해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협력) 정부는 영국 기업과 협력하여 무역을 용이하게 하고 규제 장벽을 제거함
- 공급과 수요: 글로벌 무역의 기초를 형성하며, 수출입되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변화함
 - (위험) 영국은 글로벌 해사 부문의 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 및 고용에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음
- 경쟁 및 변화: 해사 부문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은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 (기술 활용) 블록체인과 디지털 거래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세관 절차 개발이 필요함
- 신기술과 미래의 운송 모드: 하이퍼루프 같은 새로운 운송 모드로의 완전한 전환은 어려우나, 기술 발전이 해양 및 기타 운송 모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무역 패턴 변화) 기술은 무역 패턴과 상품 수요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북극 항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음
- 무역 촉진: Maritime UK와 협력하여 국제 홍보 활동을 조정하는 5년 실행 전략을 진행 중임

□ 인프라 분야

- 해양 인프라 다양성 : 선박, 항구의 물리적 구조, 공급망 및 물류를 포함하여 다양성이 큼
 - (기술 발전) 자율성, 스마트 시스템 및 빅데이터의 도입으로 운영 효율성, 신뢰성

극대화 및 비용 절감 가능

- 인프라 투자: 미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항구와 항만의 지속적인 투자와 계획 필요
 - (활동 다각화) 더 적은 수의 항구가 대부분의 상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활동으로의 다각화 필요
- 공급망 연결성: 항구는 공급망 통합을 통해 토지 사용을 극대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임
 - (기술 채택) 드론, 자율 차량 등 새로운 운송 기술 도입과 활용이 중요함
- 부문별 인프라 (Sectoral Infrastructure)
 - (재생 가능 에너지) 해양 부문은 재생 가능 에너지, 해양 집합체 및 해양 레저 산업을 지원함
 - (크루즈 센터 유지) 영국은 주요 크루즈 센터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며 국내 및 국제 페리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조선 및 보트 건조 (Ship and Boat Building)
 - (산업 발전) 조선 및 해양 엔지니어링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과 협력함
 - (전문 기술 유지) 고품질 전문 기술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
- 공급망 내 해운: 영국은 국제 심해 화물 운송과 지역 단거리 해운의 글로벌 목적지로 남을 것임
 - (기술적 변화) 새로운 기술의 채택과 선박 및 항구 측의 혁신이 예상됨

□ 보안 및 대응 (Security and Resilience) 분야

- 해역 보안 중요성: 선박과 항구의 보안 확보가 국가 이익에 필수적임
 - (다기관 대응) 정보 기반의 대응을 통해 영국 수역을 모니터링하고,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감시 수행

- 항구 및 선박의 안전 및 대응력
 - (기술 변화) 기술 발전이 항구 운영과 선박 보안에 변화를 이끄는 것임
 - (정부 지원) 정부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항구 인프라 보호를 지원할 예정
- 글로벌 해상 경로 안전 중요성: 영국은 수입 식량과 연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유 항해에 대한 안전이 중요함
 - (동맹 강화) 기존 동맹을 강화하고 해양 법 위반을 모니터링하며 규칙 기반의 규범을 지지할 것임
- 사이버 위험 증가: 기술 변화의 속도가 국가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
 - (대응 기준 개발) 영국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과 규정을 개발할 것임
- 테러리즘: 글로벌 테러 위협은 2050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해양 영역에서 주의가 필요함
 - (협력 필요) 다부처 협력과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이 요구됨
- 해양 범죄 및 해적 행위: 글로벌 해양 무역은 범죄 그룹에 의해 착취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후 변화와 같은 요인이 범죄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법 집행 강화) 영국은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해양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임

4

핵심 권고 사항

□ 경쟁 우위 분야 권고 사항

- (정부와 산업 간 협력) 협력을 통한 영국 지역 해양 클러스터의 매력을 높이고, 런던의 글로벌 해양 전문 서비스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함
- (혁신 지원) 정부는 혁신적인 기업과 아이디어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하여 UK 해양 부문에 기여해야 함
- (IMO 내에서의 리더십) 국제해사기구(IMO)의 개최국으로서 영국은 조직 내에서의 리더십 역할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신규 해양 상법 제정)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새로운 해양 상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안서를 개발할 계획임 이를 통해 기존 규제를 현대화 및 개선할 것임

□ 기술 분야 권고 사항

-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 자국의 영해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국제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해 자율 선박을 위한 국내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정할 것임
- (해양 혁신 허브 개발) 정부는 산업과 협력하여 영국 항구에 '해양 혁신 허브'를 개발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모으고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함
- (국제 해저 지역 차트 작업) 영국은 국제 해저 지역을 차트화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해양 환경 구축을 통한 수출 가능한 하드 및 소프트 기술을 창출할 것임

□ 사람들(인력) 분야 권고 사항

- ('People Like Me' Project) 해양 산업 프로젝트인 'People Like Me'의 제작을 지원하여 산업의 이미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임
- (Maritime Skills Commission 설립) 기존의 해양 기술 전문가들을 모아 Maritime Skills Commission을 설립하고, 5년 주기로 산업의 현재 및 미래 기술 수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 교육 커리큘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임
- (해양 교육 개발) 가상 현실(VR) 및 증강 현실(AR)과 같은 미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첨단 해양 교육을 개발할 것임

□ 환경 분야 권고 사항

- (경제적 도구 평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제로 배출 해운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도구를 평가할 것임
- (제로 배출 해운 목표) 산업 전략에 따라 정부는 청정 해양 계획(Clean Maritime Plan)에서 여러 “제로 배출 해운 목표(zero-emission shipping ambitions)”를 발표할 계획임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정부는 영국 해운의 온실가스(GHG)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중기 목표 도입의 장점을 고려할 것임.

□ 무역 분야 권고 사항

- (경쟁력 연구) 정부는 해양 서비스 산업과 협력하여 이 분야의 경쟁력을 조사하고 연구를 수행할 것임
- (자유 항구 논의) 정부는 항구 및 제조 산업과 협력하여 영국 내 자유 항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임
- (수출 증가 목표) 정부는 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영국GDP에서 수출 비율을 30→35%로 늘리며 해양 부문이 무역의 주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것임

□ 인프라 분야 권고 사항

- (파트너십 프로그램 시행) 항구 경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부와 산업의 투자에서 최대의 혜택을 이끌어낼 것임
- (인프라 자금 지원 고려) 해양 인프라에서 화물 및 승객의 지속적인 운송 지원을 위해 철도 및 도로 인프라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해양 부문의 필요를 계속해서 고려할 것임
- (소형 해사 산업과의 협력) 해양 부문의 전략적 성장 의제에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레저, 슈퍼요트 및 소형 상업 해사 산업과 협력할 것임

□ 보안 및 대응 분야 권고 사항

- (해상보안 강화) 국제적 노력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해상운송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임
- (시스템 접근 방식) 해양 인프라의 단일 실패 지점을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을 평가하여 연결된 인프라의 의존성과 여유도를 검토할 것임
- (테러리즘 위협 대응) 정부는 진화하는 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임

5 주요 목표

□ 단기 (1-5년)

- 재정 정책 강화 및 해사 클러스터 확립.
- 자율 운항 선박과 스마트 해사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중기 (5-15년)

- 자율 운항 선박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홍보
- 지역 클러스터 확장과 디지털화 기반 구축

□ 장기 (15년 이상)

- 해양 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 수립을 선도
- 무배출 해사 목표 달성 및 글로벌 해양 리더십 유지

6 부산국제금융중심지의 시사점

□ Maritime 2050의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

-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참여의식 표명과 해운관련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킨 전략 수립을 통해 민·관·학이 한 방향을 보는 비전을 제시함
 - MARITIME 2050 Expert Panel을 구성하여 실제 산업 현장의 자료를 구성하여 활용한 것과 같이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실제 연관 산업의 목소리를 모아야 함
 - 정부 자체의 해양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금융중심지의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의지 표명과 민간의 참여, 적극적인 학계의 연구가 필요함

□ 해양 산업계 변화로 인한 해양금융중심지로서의 기회 모색 가능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규제 및 기술 발전, 신흥 시장 부상 및 정치적 권력 기반의 변화 등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해사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됨
 - 부산국제금융중심지는 해양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①트랜드 대응 ②연구 및 제도 제안을 통해 해양금융 제도적 지원을 통한 해양금융중심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시기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

6 부록

□ MARITIME 2050 Expert Panel 구성원 목록

○ 역할 및 소속 기관 정보

구성원	역할	기관	기업 정보
Hugh McNeal	위원장, CEO	RenewableUK	영국의 재생 에너지(풍력·해양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무역 협회
Dr. Panagiotis Angeloudis	운송 시스템 및 물류학과 수석 강사	Imperial College London	과학, 공학, 의학 및 비즈니스 교육을 제하는 세계적인 연구 대학
Lucy Armstrong	의장	Port of Tyne	북동부 잉글랜드에 위치한 주요 항만으로, 다양한 해양 서비스와 물류 솔루션을 제공
Tom Boardley	글로벌 기업 및 외부 관계 담당 부사장	Lloyd's Register	해양 안전 및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관
David Dingle CBE	의장	Maritime UK	해양 관련 정책과 성장을 지원하는 영국의 해양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 협회
Pf. Costas Grammenos CBE	코스타스 그라메노스 해운, 무역 및 금융 센터 의장	Cass Business School	금융 및 비즈니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런던의 비즈니스 스쿨
Dr. Grahaeme Henderson	해운 및 해양 부문 부사장	Shell International Trading and Shipping	석유, 가스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Sarah Kenny	CEO	BMT Group	해양 및 방위 분야의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Professor David Lane CBE	엔지니어링 및 물리 과학 학부	Heriot-Watt University	에너지,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및 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는 대학
Dr. David Loosley	CEO	IMarEST (Institute of Marine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해양 엔지니어링과 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지원하는 국제 기관
Michael Parker	해운, 물류 및 해양 산업 글로벌 책임자	Citigroup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로, 다양한 산업에 대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
Neil Roberts	해양 및 항공 부문 본부장	Lloyds Market Association	보험 및 재보험 시장의 대표 조직
Martin Stopford	회장	Clarkson Research	해양 산업에 대한 시장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기업